

## 鄉藥救急方の 方中鄉藥目 研究 (6)

李 德 鳳\*

### Ⅲ. 藥材의 鄉名의 解讀과

#### 그 變遷 및 語源의 考察

方中鄉藥目에 收錄된 180種의 藥材의 半數以上에 吏讀文으로 된 鄉名이 記入되어 있는데, 動植物의 吏讀文 鄉名이 이렇게 集團의으로 記錄된 것은 他に 그 例를 볼 수 없다. 或은 鄉歌나 其他 詩歌에서 흔히 吟詠되는 動植物 따위의 鄉名이 散見되는 바 없지 않고, 또는 本方書以前부터 있었다고 推測되는 「鄉藥古方」과 序文에서 言及한 바 있는 濟衆立効方이나, 新集御醫撮要方 같은데도 或은 動植物의 鄉名이 記入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古方書가 모두 滅失된 現속에 있어서는 하나의 臆測에 지나지 못한다.

本章에서는 吏讀文으로 된 鄉名의 解讀을 試圖해 보 고저 하며 또 諸 醫書와 其他 古典에 보이는 動植物의 鄉名과를 比較하여 그 變遷過程을 考察하는 同時에 그 語源도 多少 穿鑿해 보고저 한다. 그러나 이 方面에 아무 素養이 없는 筆者로서 이러한 試圖을 敢行한다는 일은 웃음꺼리가 될만한 無謀한 짓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만 筆者는 動植物의 古名과 現名에 對하여 多少의 知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蠻勇을 내어 보았다. 多幸히 吏讀文의 鄉名에 對하여 梁柱東博士의 閱覽과 助言을 얻게된데 對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 凡 例

(가) 項은 吏讀文으로 된 鄉名의 解讀

(나) 項은 諸 醫書와 其他 古典에 보이는 動植物의 名稱.

(다) 項은 動植物名의 變遷과 그 語源의 考察 出典의 略稱(解題는 第Ⅱ章末尾 參照)

1. 月 令 鄉藥採取月令
2. 鄉 藥 鄉藥集成方
3. 東 醫 東醫寶鑑
4. 濟 衆 濟衆新緣

5. 方 藥 方藥合編
6. 醫 南 醫學指南
7. 訓 蒙 訓蒙字會
8. 物名攷 物名類攷 柳僊
9. 物名考 物名考
10. 才物譜 才物譜
11. 才物譜<sup>2</sup> 才物譜筆寫本
12. 蒙 喻 蒙喻篇
13. 物 譜 物譜
14. 詩 解 詩經諺解
15. 龍 歌 龍飛御天歌
16. 新字典 新字典 崔南善
17. 新玉篇 明文新玉篇 金赫濟

#### 1. 鄉名의 解讀과 그 變遷 및 語源의 考察

(註)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의 吏讀文 鄉名의 ( )內 國音은 筆者의 解讀

##### 1. 菖 蒲 俗云 松衣 𦉳 [又云 消衣 𦉳]

(가) 松衣 𦉳 } 소리마.  
消衣 𦉳 }

衣가 「리」로 發音된은 (다)項 參照. 𦉳(音마, 俗字)

(나) 菖蒲 鄉名 松衣𦉳(소리마, 月令). 菖蒲(鄉藥). 석창포(東醫, 方藥). 석창포(濟衆). 창포(物名攷). 창포(蒙喻). 창포(才物譜<sup>2</sup>). 장포말희(醫南). 菖 창포창蒲 창꽃포(訓蒙).

(다) 本草綱目에, 「菖蒲, 乃蒲類之昌盛者, 故曰菖蒲」라 하였다.

三國遺事에 「俗以端午爲車衣」<sup>(1)</sup>라 하였고, 京都雜志와 東國歲時記에는 「端午俗名戍衣日, 戍衣 東語車也」<sup>(2)</sup>라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新羅以來 端午를 「수리」로 부른 것을 알 수 있고, 端午에는 여러가지 習俗이 있거니와, 그 中에 男女 兒童 特히 女兒들이 菖蒲湯으로 洗面(近來에는 洗髮), 沐浴하고 또 그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sup>(3)</sup> 「수

(1) 三國遺事 卷二 文虎王條

(2) 京都雜志 卷之二 端午條, 東國歲時記 五月端午條

(3) 同 上

\* 理博, 中央大學校 理工大學

리마?→소리마]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이러한 데서  
由來된 것이 아닌가 한다.

高麗 以前부터 불러 왔다고 생각되는 「松衣尔, 소리  
마」의 이름이 「鄉藥採取月令」에 보임으로 李朝 初期까  
지 存續된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以後의 文獻에는 「소  
리마」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 李朝 初期 以後 어느  
사이에 「소리마」는 消失되고, 菖蒲(창포 또는 장포)로  
通稱되고 있다.

2. 菊 花

(나) 菊花(鄉藥). 甘菊花 강성황(東醫). 菊花 강성  
황(濟衆). 甘菊(方藥). 菊(醫南, 物譜). 菊(才物  
譜). 鞠 俗作菊(物名攷).

(다) 菊에 對하여, 李時珍은 陸佃俾雅의  
菊本作鞠, 從鞠, 鞠窮也, 月令九月, 菊有黃華, 華事  
至此而窮盡, 故謂之鞠, 節華之名  
云云을 引用 說明하였다.

「강성황」은 名醫別錄에 菊의 別名이 更生(강생, 中  
國音 경성) 인데서 更生黃이 생기고, 이것이 訛變하여  
「강성황」이 된 것이 아닌가? 「감국」은 甘菊, 菊華는  
菊花, 「구화」는 菊화로 부터 由來된 것이다.

감국, 菊華, 구화의 名稱이 現今도 그대로 使用되고  
있다.

3. 地 黃

(나) 乾地黃, 生地黃(鄉藥). 生地黃, 熟地黃(東醫).  
生地, 熟地(濟衆). 生地 一名 苻, 熟地(方藥). 地黃(醫  
南). 苻(物譜). 地黃 싱디황(物名攷). 苻 地黃(物名  
攷).

(다) 本草綱目 地黃의 釋名에 苻音戶라 하였고, 李  
時珍 曰

「爾雅云, 苻, 地黃, 郭璞云, 江東呼爲苻, 羅願云, 苻  
以沈下者爲貴, 故字從下」  
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普通 苻를 「변」으  
로 읽는다. 「卍」밑에 「下」으로 보고 그렇게 불려온 것  
으로 생각한다.

乾地黃은 生地黃을 말린 것이요, 熟地黃은 生地黃을  
술에 넣어 數次 沭낸 것이다.

4. 人 參

(나) 人蔘(鄉藥). 人參 심(東醫, 濟衆, 方藥, 物名攷)  
人蔘 삼(醫南, 才物譜, 物譜).

(다) 本草綱目的 人參 釋名에 人蔘 音參 或省作蔘,  
又 李時珍 曰,

「人蔘年深浸漸長成者, 根如人形有神, 故謂之人蔘神  
草, 蔘字從浸, 亦浸漸之義, 蔘即浸字, 後世因字文繁,  
遂以參星之字代之, 從簡便爾然」

이라 하였다.

蔘의 音 「삼」 또는 「심」인데, 지금도 採藥者間에는  
「심」으로 通稱한다고 한다.

5. 白 朮 俗云 沙邑菜.

(가) 沙邑菜 삼취  
(나) 朮(鄉藥). 白朮 삼돛불취, 蒼朮 附記(東醫).  
삼돛불취(濟衆). 삼돛불취, 蒼朮 別記(方藥). 삼돛불  
취(醫南). 朮 삼주(才物譜), 蒼朮 蒼朮 삼주(物譜). 白朮  
或云 特名 던취풀(物名攷). 荒朮 삼주(物名攷).

(다) 朮에 對하여 本草綱目에 「朮字篆文, 象其根幹  
枝葉之形」으로 解釋하였다.

삼취→삼주→삼주(現名)

6. 菟 絲 子 俗云 烏伊麻. 菟絲子

(가) 烏伊麻 사이삼→새삼 烏 사이(麗謠箋注 p. 60)  
(나) 菟絲子 烏麻(새삼, 鄉藥). 菟絲子 새삼씨(東  
醫), 菟絲 새삼씨(濟衆). 씨삼씨(方藥). 菟絲子 씨삼  
씨(醫南, 才物譜). 새삼(物譜).

(다) 「새삼」은 烏之麻 즉 「새의 삼」을 意味하는 것  
이다.

7. 牛 膝 俗云 牛膝草.

(가) 牛膝草 우슬초, 又は 쇠무릎풀.  
(나) 牛膝 鄉名 牛無樓邑(쇠무릎, 鄉藥). 쇠무릎더  
기(東醫, 濟衆, 方藥). 쇠무릎(才物譜).

(다) 牛膝에 對하여, 陶宏景은  
「其莖有節似牛膝, 故以爲名」  
이라 하였다.

「쇠무릎」은 牛膝의 譯名이요, 現時 「쇠무릎」, 「우슬  
초」는 並用되고 있다.

8. 柴 胡 俗云 山叱水乃立. [又云 青玉菜,  
楮突水乃立]. 此胡 唐의 蘇恭曰「此是古柴字」.

(가) 山叱水乃立 뫼기나리. 楮突水乃立 돛의 키나리.  
山 뫼산. 叱은 「s」[t, s]의 促音으로 쓰인다. (吏讀集  
成 p. 26). 물의 音古 뫼(麗謠箋注 p. 81). 乃나(吏讀  
集成 p. 3). 立 립은 初, 中聲만 音借.

(나) 柴胡(鄉藥). 뫼기나리(東醫). 뫼은 뫼의 誤記  
?, (筆者註). 뫼기나리(濟衆, 方藥). 뫼기나리(醫南).  
쇠호(物譜). 뫼기나리(物名攷).

(다) 뿔미나리→뿔미나리. 高麗以來「뿔미나리」又是「뿔의 미나리」의 純國名은 漸次 後退하고, 近世에 와서 柴胡(시호)의 漢名이 通用되고 있다.

「뿔미나리」는 山之芹, 「뿔의미나리」는 鷄之芹의 뜻이다.

9. 芫蔚子 俗云 目非也次.

(가) 目非也次 눈비약.

(나) 芫蔚子 鄉名 目非也叱(눈비약, 月令, 鄉藥).

目은 義借, 非也는 音借, 叱는「시」發音(No. 8(가)項 보라).

芫蔚子 一名 益母草, 암눈비약씨(東醫). 益母草 암눈비약(濟衆). 芫蔚子 암눈비약씨(方藥). 益母草(醫南). 芫蔚子 눈비약이(物譜)…… 益母草와 區分함. 눈비약이(物名考). 芫蔚 암눈비약, 益母草(物名攷).

(나) 芫蔚 及 益母草의 名稱에 對하여는 李時珍의 「此草及子, 皆芫盛密蔚, 故名芫蔚, 其功宜於婦人及明目益精, 故有益母之稱」.

云云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있다.

「눈비약」 또는 「눈비약이」는 上記 「……其功宜於婦人及明目益精」에 依하여 「目秘藥」(눈비약)에서 온것은 아닌지?. 또 「암눈비약」은 婦人藥으로 有功함으로 뒤대 「암」을 附加한것이 아닌가 한다.

눈비약→암눈비약. 現在 암눈비약은 거의 쓰이지 않고 益母草(익모초)를 通用되고 있다.

10. 麥門冬 俗云 冬沙伊.

(가) 冬沙伊 겨우사리→겨우사리.

水賜伊 우수리(吏讀集成 p. 20)

(나) 麥門冬(鄉藥). 겨우사리불휘(東醫). 麥門 겨우사리불휘(濟衆, 方藥). 麥門冬 겨우사리근(醫南). 麥門冬 一名 凍靑, 겨우사리(物譜).

(다) 麥門冬에 對하여, 李時珍 曰

「麥鬚曰蠶, 此草根似麥而有鬚, 其葉如韭, 凌冬不凋, 故謂之麥蠶冬……俗作門冬, 便于字也」

라 하였다.

「겨우사리」의 이름은 麥門冬이 常綠 冬靑인려서 由來된 것이다. 그러나 이 純國名인 「겨우사리」는 近世에 와서 寄生木의 專用名이 되고, 漢名 麥門冬(떡문동)이 通用된다.

11. 獨活 俗云 虎驚草

(가) 虎驚草 호경초? 뽕노리풀? 뽕노라새?

「뽕」의 虎의 古訓.

(나) 獨活 鄉名 虎驚草(月令). 獨活 鄉名 地頭乙戶

邑(뽕돌흙, 鄉藥). 獨活 뽕돌흙(東醫). 뽕돌흙(濟衆). 뽕돌흙(方藥). 獨活 뽕두름(醫南). 뽕활(物譜). 강으리(方物譜?).

(다) 獨活에 對하여, 陶宏景 曰 「一莖直上, 不爲風搖, 故曰獨活」이라 하였다.

뽕돌흙→뽕두름은 땅(地, 又は 土) 두름의 뜻인데, 봄에 눈이 터서 얼마 아니 되었을 때에 그 根莖을 食用하는데서 「뽕두름」이란 이름을 얻게 된것 같다.

純國名인 「뽕두름」과 漢名인 獨活(독활)이 現수 並用되고 있다.

12. 升麻 俗云 雉骨木, 又 雉馬老草

(가) 雉骨木 외골나모. 雉馬老草 외마로풀. 雄雉曰 升의

(나) 升麻(鄉藥, 醫南). 외덜가릿불휘(東醫, 濟衆). 외덜가릿불휘(方藥). 승마(物譜). 가덜두름(物名攷).

(다) 升麻에 對하여, 李時珍은 「其葉似麻, 其性上升故名」이라 하였다.

외골나모→외덜가리 } 로 變轉된 것인지?  
외마로풀→외덜가리 }

現在 「꼭걸가리」, 「끼덜가리」, 「승마」등의 이름이 並用되고 있으나, 漢藥局에서는 升麻(승마)로 通稱한다.

13. 車前子 俗云 吉刑菜實

(가) 吉刑菜 길경채

「刑」의 古풀 경

(나) 車前子 鄉名 布作伊只(뽕자기, 鄉藥).

只 기(吏讀集成 p. 45)

길경이씨 一名 뽕뺨이씨(東醫). 길경이씨(濟衆). 車前 길경이씨(方藥). 車前子 길경씨(醫南). 길경이(才物譜, 物譜, 物名攷). 車前 길경이(物名考).

(다) 車前은, 爾雅에

「此草好生道邊及牛馬跡中, 故有車前之名」

이라 하였다.

길경이→길경이. 뽕자기→뽕뺨이→뽕부장.

現今 地方에 따라 「길경이」, 「질경이」, 「뽕부장」, 「길장구」, 「배합조개」 등의 이름이 使用되고 있다.

14. 薯蕷 俗云 午[?]

(가) □ 마□

(나) 薯蕷(鄉藥). 薯 마서, 蕷 마여(訓蒙), 薯蕷 마(東醫, 濟衆). 薯蕷 卽 山藥 마(方藥, 物稱).

(다) 現今 一般은 마, 漢藥局에서는 山藥(산약)으로 通稱하고 있다.

15. 薏苡仁 俗云 伊乙梅

(가) 伊乙梅 이을미→을미

(나) 薏苡仁 有乙梅(을미, 月令). 薏苡仁(鄉藥). 을미밭(東醫). 薏 을미의 薏 을미이(訓蒙). 薏薏 을미밭(濟衆). 을구밭(方藥). 을구밭(醫南). 물구우(才物名). 을모(物譜). 을구우(物名攷). 草珠米 을구우(物名考).

(다) 을미→을리→을모→을부(現名)

16. 澤瀉 俗云 牛耳菜

(가) 牛耳菜 쇠귀나물

(나) 澤瀉 牛耳菜(쇠귀나물, 月令, 鄉藥). 쇠귀나물 불취(東醫, 方藥). 쇠귀나모불취(濟衆). 조귀나물(醫南). 쇠귀나물(物名攷).

(다) 澤瀉에 對하여, 宋의 蘇頌은 「其葉似牛舌」이라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잎이 쇠귀 비슷하다고

보아서 「쇠귀나물」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쇠귀나물→쇠귀나물(現名).

17. 遠志 俗云 非師豆刀草, 又 阿只草.

(가) 非師豆刀草 비사두갈풀. 阿只草 아기풀. 刀草(麗謠箋注 p. 121).

(나) 遠志 阿只草(아기풀, 鄉藥). 아기풀불취(東醫, 濟衆, 方藥). 아기풀불취(醫南). 원지(物名).

(다) 遠志는, 本草綱目에

「此草服之, 能益智強志, 故有遠志之稱」

이라 하였다.

아기풀→애기풀(現名)

現今 「애기풀」과 遠志(원지)가 並用된다. 「애기풀」은 全體로 모양이 작고 可憐한 꽃이 피는에서 얻게 된 이름일 것이다. 「비사두갈」의 뜻은 不明. (계속)

◇ 漢藥製粉製丸의 元祖·現代機械施設完備 ◇

## 新 興 製 粉 所

서울特別市貫鐵洞二〇番地

電話 ⑦④ 三五八七番

代表漢醫師 崔興善

◇ 三十餘年の先驅的傳統과 信用을 자랑하는 ◇